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명절 추석 걱정 던다”

오늘부터 채무조정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추심 중단
캠코 지역본부 “접수창구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이 조기 시행된다. 채무자들이 추심 걱정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다음 날부터 즉시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보

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났다. 신청 기간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된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

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차주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도 소액 신규대출(총대출의 30% 이하)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부 정책상품에 관한 채무조정도 가능해진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2022년 8월 이후 신규로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채무조정을 원하는 광주·전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신청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를 광주본부 외에 목포와 여수지사가

지 확대 오픈한다.

이번 현장 접수 창구 확대는 고금리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채무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원하는 전남지역 동서남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신청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캠코 광주본부(서구 내방로 392 소재) 이외에 목포지사(무안 오룡3길 2 소재), 여수지사(여수 시청로 57 소재)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통합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

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3570명, 신청액은 5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채무로 어려움을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며 “이번 접수 창구 확대로 더 많은 지역민들이 새출발기금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유기그릇 전문점 입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리빙매장에 유기 그릇 전문 브랜드인 ‘수타미’

가 지난 8월 신규 입점했다. 해당 매장은 유기 밥그릇, 국그릇을 비롯해 수저까지 건강을 생각하는 다양한 찬기들을 선보인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77호 이형근 유기장인의 옥바리, 옥식기 등의 다양한 제품과 더불어 자개 미니 가구까지 다양한 우리 전통의 멋이 가득 담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추석 명절 특집으로 2인 반상기, 수저, 팔사기 등의 제품을 오는 30일까지 최대 60%까지 할인하며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풍성한가위’ KJ카드 추석 이벤트

기프트카드·모바일쿠폰 경품 행사

광주은행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9일까지 ‘풍성한가위 KJ카드가 채워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5가지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응모가 필수이며,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50만원권) △네이버페이 모바일쿠폰(3만원권) △GS칼텍스 모바일쿠폰(3만원권) △신세계 모바일 쿠폰(3만원권) △CU 모바일 쿠폰(2만원권)을 제공한다.

‘모든순간’은 기간 내 전체업종에서 합산 50만원이상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명에게 기프트카드(50만원권)를 제공한다.

‘온라인쇼핑의 스마트한 순간’은 기간 내 온라인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네이버페이 모바일쿠폰(3만원권)을 제공한다.

‘귀성길의 탁월한 순간’은 기간 내 주유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GS칼텍스 모바

일쿠폰(3만원권)을 제공한다.

‘마음을 전하는 순간’은 기간 내 백화점·대형마트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쿠폰(3만원권)을 제공한다.

‘즐겁고 맛있는 순간’은 기간 내 일반음식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CU 모바일쿠폰(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 와뱅크(APP), 모바일웹뱅킹, 인스타그램(@kj_card), 카가오톡(광주은행 KJ Card),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동구 카드사업부장은 “연휴가 긴 추석인 만큼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공예제품, ‘파리 메종&오브제’서 수출 성과

5개 공방 참가...2억5천만원 수출

광주지역 공예제품들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수출 길을 활짝 열었다.

11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9일까지 파리 빌팡트 국제전시관에서 열린 ‘2024 파리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 2024)에 광주지역 5개 공예공방이 참가, 해외 바이어들과 200여건 18만 유로화(한화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출 계약 상담을 했다.

이번 국제전시참가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공예품마케팅판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공예인들의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 메종&오브제’에 약 36㎡ 규모의 공동전시장을 구성하고, 현지에서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공동관에는 ‘수다도자기’, ‘에이앤즈협동조합’ 등 이미 그 실력과 상품성을 검증받은 광주지역 5개 공방이 다양한 공예상품을 선보였다.

참여공방들은 이번 전시 기간동안 프랑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9일까지 파리 빌팡트 국제전시관에서 열린 ‘2024 파리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 2024)에 광주지역 5개 공예공방이 참가, 해외 바이어들과 200여건 18만 유로화(한화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출 계약 상담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스, 이탈리아, 쿠웨이트, 일본 등 30여 개국의 바이어와 18만 유로화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국 공예상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는 더자기플러스(대표 정지윤)는 ‘차곡차곡’ 다기 세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독일의 ‘Raider

design stories’와 2만 유로화 상당의 수출 계약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한 ‘에이앤즈협동조합(대표 임정하)’은 미국의 ‘Dockside Living’ 그룹과 약 1만5000 유로화 상당의 수출 계약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전시 기간 동안 주프랑스대사관 등 약 900여명이 이번 진흥원 공동관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200여건이 수출 상담으로 이어졌다.

나다운 기자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호응

영암서 금융교육·채무 등 상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시골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설명하는 금융교육과 채무문제, 상속문제 등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운영하는 전남사

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영암군 미암면 남산3구 경로당을 찾아 시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남산3구 어르신들은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미용서비스, 안마서비스, 치매예방활동, 키오스크 체험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와 함께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금융사기 예방교육 수강과 채무문제, 상속문제 등 그동안 궁금했던 금융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

문들을 쏟아냈다.

한편 전남도에서 도민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교육 및 채무상담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 도내 2곳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 대해 출장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채무 관련 도움이 필요한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및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부센터(061-727-2590)는 순천 신대애, 서부센터(061-285-3980)는 무안 남악에 자리 잡고 있다.

나다운 기자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백양사 주유소 영업중단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순천방향) 휴게소내 주유소 영업을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19일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업중단은 주유소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인한 것이다.

주유소 영업중단 기간 중에도 휴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장기간의 주유소 영업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주유를 하거나, 인근 주유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